

## 천사가 이끌어 준 삶의 이정표

김상희 미카엘 / 용암동

2002년 6월 천사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해 12월 아내와 세례를 받았다. 그 뒤 두 딸과 아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용암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 천주교 집안이 되었다. 사실 마지못해 갔던 성당이었지만 천주교 신앙이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온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이야기는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집안에 장손이고 첫 번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셨다. 하루는 시주하는 스님이 집에 오셨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난 아들 애기를 하니 “절에 다녀야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여 어머니는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내가 50이 넘어서도 자식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속리산 수정암 절에 다니셨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기억이 있다. 절밥을 먹던 것과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나에게 아내는 세 아이를 낳고 큰딸이 유치원 다닐 무렵에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다.”라며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절에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각인되었기에 교회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일 같아 아내 말이 탐탁하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바르게 살면 됐지,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외면하면서 필요하면 혼자 나가라고 타박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마음은 절대 나가지 않기를 바랐다. 당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퇴근해 집에 오면 잠자기 바빴고, 어쩌다 쉬는 날이면 피곤하여 병든 닭처럼 잠으로 보냈다. 치열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잇을만하면 교회에 다니자고 말을 꺼냈다. 그럴 때마다 앵무새처럼 “우린 무교니까 신경 쓰지 말어.”라고 얼버무렸다. “다니고 싶으면 혼자 다니지, 왜 나를 끌어들이 피곤하게 만드냐.”며 화내고 다툰 때도 많았다. 아내는 “내가 성당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아내가 철없어 보이고 알미웠다.

1995년 12월 청주로 직장을 옮겼다. 부모님도 청주에 계시고 학교도 이곳에서 다녔으니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였다. 아내도 한동안 성당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고질병이 돌아나듯 다시 말을 꺼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도 용암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가보고 싶다는 것이다. 순간 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잇을만하면 성당 얘기를 꺼낼 때 ‘대체 왜 저럴까?’ 하며 내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아내가 남같이 느껴졌다. 청주로 직장을 옮기고 출장과 접대로 집에 늦게 들어

올 때가 많았다. 나의 변하지 않는 생활에 아내는 불만이 쌓여가는 듯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더 야속하게 느껴졌다.

나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번번이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할 때는 딱 막힌 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였다. 2002년 5월 접대로 집에 늦게 들어와 말다툼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다. 아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5월 마지막 일요일 덕유산 향적봉으로 철쭉을 보러 갔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자기야 성당 한번만 가보자.”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와서 성당 얘기를 할 줄은 몰라 순간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다. 엇그제 늦게 들어와 미안함도 있었는데 거절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임기응변으로 “그럼, 한 번만 가보는 거야.”라며 마지못해 대답하였다. 아내는 성당에 나가더라도 한 것처럼 흐뭇해 보였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넘게 성당에 다니게 될 줄은 까맣게 몰랐다. 다음 주 일요일 아내는 예매한 티켓이라도 내밀듯 성당 가자고 하였다. “남아일연중천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며 알았다고 하였다. 불편한 심기의 나와는 다르게 아내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쁜 표정이 역력했다. 가본 용암동 성당은 신축되었고 크고 웅장했다. 낮설고 어색한 성당에서 교중미사도 참석하였다. 속으로 “이제 성당에 와봤으니 더는 얘기하지 않겠지.”라면서 위안을 했다. 미사 끝나고 성당 밖으로 나오니 신부님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냐?”며 물어보셨다. 아내가 “신자는 아니고 성당이 어떤 곳인지 구경 왔다.”라고 하였다. 신부님은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평소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신자도 몇 분 만났다. 성당을 다녀 보라며 예비자교리를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아내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예비자교리를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체면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아내와 6월에 시작하는 예비자교리반에 등록하였다. 10년 넘게 철옹성같이 버텼던 의지가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졌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내의 오랜 전구를 들어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10년에 걸친 신앙 싸움은 아내 승리로 끝이 났다. 아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고 행복감에 빠진 것 같았다. 예비자교리가 다가오자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하였다. 아내는 예비자교리가 있는 날은 당부 사항이 많았다. “약속 잡지 말아라.” “퇴근 일찍 해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 처럼 마음대로 다루는 것 같았다. 교리가 시작되었을 때는 역지로 물가에 끌려온 송아지처럼 뒷걸음질 치고 도망갈 궁리로 가득하였다.

생소한 용어와 내용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의 끈질긴 독려로 예비자교리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고 개근까지 한 것을 보면 성령의 이끄심인 것 같다. 2002년 12월 성탄 전날 세례를 받았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세례명은 대천사 미카엘, 미카엘라이다. 이제 무교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다.

세례 전까지는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았다.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아주 큰 변화이다. 확실한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미카엘라는 세례받고 몇 달 지나니 다시 ME 교육에 가자고 하였다.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ME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며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잉꼬부부로 잘살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받냐.”며 거두절미하였다. 미카엘라는 성당 가자고 얘기하듯이 기회만 되면 ME 얘기를 꺼냈다. 세례받고 얼마 후 아내는 ME 교육 신청했으니 가자고 하였다. 나는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아내의 성화와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ME 교육에 들어갔다. 마지못해 들어간 교육에서 교구 ME 봉사부부로 선발되어 지금까지 20여 년 봉사하고 있다. ME 봉사는 우리 부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큰 전환점이다.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에 든든하였다. 마지못해 성당에 나왔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례받고 신부님과 신자들을 알게 되면서 낯설고 불편했던 성당이 적응되고 편안해졌다. 세례받기 전까지 성당은 빨간 벽돌로 된 높은 건물에 십자가가 있고 신부님과 수녀님이 거주하시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비한 곳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례 후에 우리 가족은 성당이 마치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했다. 우리 가정은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자식도 세례를 받아 성가정이 되었다. 아들이 어린이 복사할 때가 생각난다. 추운 겨울 월요일 새벽 미사 복사라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 ‘아들아, 왜 월요일 새벽 미사 복사가 자주 돌아오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인 적이 있다. 아들은 다른 아이를 배려해서 복사를 선 것이다. 지금같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배려심 많은 아이로 성장해 주기를 바랐다.

세례 후에 부모님께는 성당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갈등이 생길 것 같아 비밀로 하였다. 집에 오신다고 하면 십자가와 성물은 치웠다. 그렇게 일 년 정도 지나면서 미카엘라는 “언젠가 부모님도 알게 될 테니 얘기하자.”라고 하였다. 막상 말씀드리니 “너희가 좋으면 됐지.”라며 의외로 순순히 인정해 주셨다. 미카엘라는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 “아버님, 어머님도 성당 나오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다. 절에 다닌 지 50년이 넘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미카엘라의 지속적인 권면으로 두 분이 함께 나오셨다. 성가정으로 반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자식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다. 딸들 혼인할 때 사위들에게 성당 나오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사위들은 혼인 전에 세례를 받았고, 큰딸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였다. 손주들도 유아세례를 받아 온전한 성가정이 되었다. 교구장님 성가정 축복장을 받는 영광도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용암동 성당에서 4대가 미사 참례하는 은총도 받았다. 큰 딸네는 이웃에 살고 있어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 교종미사 후에 가끔 점심 식사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 부부의 성사적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사랑을 나누어 준다. 이 모두가 하느님의 축복이며 은총이다.

차츰 성당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하느님을 더 알고 4년에 걸쳐 성경 필사를 하여

교구장님 축복장도 받았다. 세례받고 시작한 전례는 신앙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15년 이어진 미사 해설과 독서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잡아주었다. 지금은 전례 대신 성인 복사를 하며 하느님과 가까이하고 있다. 평협회, 레지오,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었고, 자신을 성숙시켰다. 미카엘라는 꾸리아 단장을 6년 연임하고, 평협회, 레지오, 예비자 교리교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카엘라는 외인에게도 끈질긴 선교를 실천하여 2015년 청주교구 레지오 도입 60주년 기념식에서 교구장님 선교 우수상을 받았다.

세례받은 지 20년 넘었지만 한 번도 냉담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앙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하느님 부름심에 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이다.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구는 아내에게 잘 어울린다. 성령께서 아내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내의 지혜가 가족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내 권유가 아니었으면 천주교 신앙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가정을 더욱 성숙하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었다.

부부는 작은 교회인 것처럼 가정도 작은 교회이다. 가정교회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때 온 세상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비신자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아집과 잘난 멋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세상만 보며 살았을 것이다.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은총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이 좋은 하느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마지못해 나간 성당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다.

선교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무척 어렵다.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내 미카엘라의 끈질긴 근성과 지혜로운 선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도 선교의 눈이 떠지도록 성령께 청해 본다.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